

인니 자카르타, 수도 이전 후엔 '경제 특별구'로 지위 변경

(자카르타=연합뉴스) 박의래 특파원 =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가 향후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법적 지위를 경제 중심의 '특별구'로 전환하기로 했다.

28일(현지시간)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(DPR)은 이날 '자카르타 특별구에 관한 법안'을 통과시켰다.

이 법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대통령이 칼리만탄섬의 누산타라를 새 수도로 공식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할 때까지는 수도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. 수도 이전을 추진해 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연내 누산타라를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로 지정할 계획이다.

일단 누산타라가 공식 수도가 되면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의 특별구 지위를 얻게 된다.

자카르타는 특별구로서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 도시 간 개발 계획을 조율하는 기능의 '통합 위원회'를 구성하게 된다.

논란이 돼 온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지사 선출 방법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로 했다. 당초 이 법이 논의될 때는 정부가 직접 자카르타 주지사를 임명하거나 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.

티토 카르나피안 내무부 장관은 수도가 누산타라로 바뀌더라도 자카르타는 다른 '세계적 수준의 도시'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"수도가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"고 강조했다.

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폭증과 침수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도 이전을 추진, 2019년 8월 칼리만탄섬 동부를 신수도 부지로 선정했다. 또 2022년에는 신수도 이름을 누산타라로 정하고 이를 위한 '신수도 건설법'을 통과시켰다.

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5단계에 걸쳐 총 320억달러(약 43조1천억원)를 투자해 신수도를 완공할 예정이다.

인도네시아 정부는 1단계로 연내 대통령궁을 비롯해 주요 행정부처를 이전하고, 오는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에서 열어 수도 이전을 선포할 계획이다.